

በ 20 ዓመት, በዚህ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ዚህ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ዚህ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ዚህ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ዚህ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በ 20 ዓመት.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민문화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부심을 찾아봅니다.

문화부시장이
필요해!

문화가 별개인가?
우리 삶이 나아지려면
모든 곳에서 '문화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부시장의 등장이 가져올 내일을 그려보아요.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

문화매개자를 배고프게 하는
이 가로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시민문화도 자라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천에
바다가 있어?

인천! 하면 바다! 도 떠올라야 하는데,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간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 □ □□□ □□□□ : □□□□ □□ □□□ □
□

□□ □ □□□ □□□□□□□□ □□ □□□ □□

□□□(2021 □□□□□□ □□)

በዚህ ሪፖርት ውስጥ የሚገለጹት የጥናት ውጤቶች የሚገኙት ለአጠቃላይ ጥናት ብቻ ናቸው። ለተጨማሪ ጥናት ዓላማዎች ማጠቃለያ ሊያስፈልግ ይችላል። ለምሳሌ፣ የጥናቱ ውጤቶች ለሌሎች የጥናት ዓላማዎች ሊያስፈልግ ይችላል። ለዚህ ሪፖርት ውስጥ የሚገለጹት የጥናት ውጤቶች የሚገኙት ለአጠቃላይ ጥናት ብቻ ናቸው። ለተጨማሪ ጥናት ዓላማዎች ማጠቃለያ ሊያስፈልግ ይችላል።

000, 000 00 00 000 000000 ‘00 00 000.’ 0 000 000 000. 000 000 00
 00000 00 ‘00 000 000 0000 0 000?’ 0 00 000 00000. 0 00 00 000 0
 00 000 00 00000 00000 00000 000 000 00000 00000 000 000000 000 00000.
 00, 00 000000 00 00, 0 00000 00000 000000 00. 00 00000 00 000 000 0
 00 000000 000 000 0 00 000 00000 00. ‘00 000 00000?’ 0 000, ‘0000 0
 0000 000?’ 0 00000 00.

[illegible][illegible]

예술 지원 탐사단

다양한 예술 지원 정책을 추적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문제를 발굴합니다.

문화 공간 탐사일지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뒤흔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탐사 지도 비교하기

전국의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뒤흔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전국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뒤흔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전국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뒤흔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전국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뒤흔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전국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름(성명, SoungKwan Lim)

2021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름(2021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0 00 000 000 00000 0000. 0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000 000 000 000 000 000 00, 20210 000 00
 0000 000 00000 0 00 000 00 000 00. 0001900 000 000 0 00 00000
 00 000 00 000 0000 00. 0000 00 0000 000 000 00 000 00000 000 0
 0 00000 0000 000 0000 00. 00 0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0
 000 000(on-line)00 00000 0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0
 0000 00 000 000 00 00 00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0 00000
 000 000000.

[illegible]

2018年 10月 10日 ‘ 10月 10日 ’

በጥቅም ላይ የዋለው የጥሬ ጥቅምት ስርዓት <የጥሬ ጥቅምት ስርዓት> በጥቅምት ስርዓት ስር በጥቅምት 1997 በጥቅምት ስር 25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6, በጥቅምት ስር 2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2000 በጥቅምት 2018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8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በጥቅምት ስ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 □□□ ‘□□!□□□’ □□□□

[illegible]

000 0000 000 <0000 0 0000>, <000000>, <0000000000>, <00000> 00
 000 000 0000 0000 00. 00019 0000 0000 0000 000 000 0000 0000 0
 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 00 00000 000 000 000 00000
 000 00 000 00 000. ‘000 000 00 000 00 00?’00 000 0000 00000 00.
 00 0000 00000 00 000 0000 00 00 000 000, 0000 0000 000000 0000
 000 000 00 00 00 00. 00019 00 000 000 000 00 000 0 000 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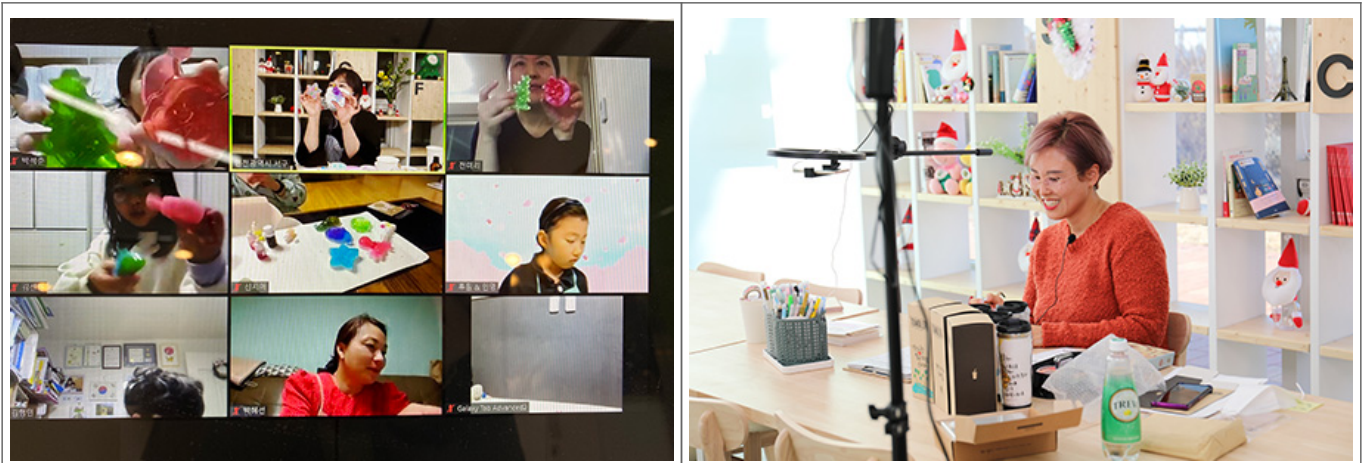
2021 ခုနှစ်အတွက် ချမ်းသာစွာ ဖြတ်သန်းနိုင်ပါစေရန် အားပေးပါရန် တောင်းဆိုပါသည်။

□□□ □□□ □□□ □□□ □□
□□□ □□□□□ □□

□□□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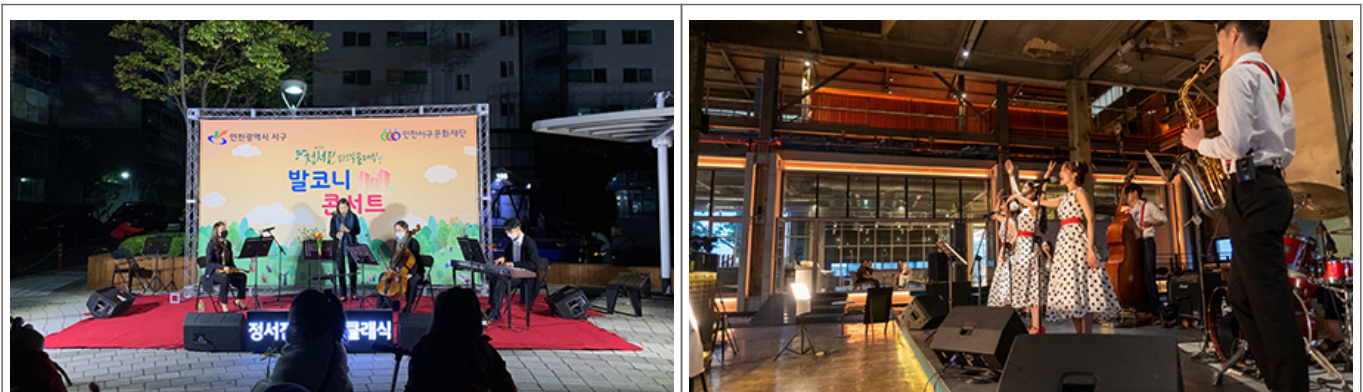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1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0000 0000 00> 0000 0000 00 00

4. 000019 0000 0000 00 000 0000 00 000 0000 00 0 0000.

000019 000 0000 00 000 000 0 0 00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 000000 00 00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00 00 00 0000(2021. 3.)

0000 00000 0000 00 0 00 0000 000 00000 0000 00000 00000000 00 00000 '0000 0(0000 00)' 0000 00000 10 0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 00 0 00000000000 00000 0000 00000. 00 00 0 000000000 0000 0000 00, 0 00 00000 00000 00000000 00 00000 0000 000000 000000 000000 00 0000. 00 000 0000 00 0 00 00, 00000000 00 0 00 0000 00 00000 0000 00000 00000 00 0000 00 0000 0000.

00000000 00 00 0 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0 0000 00000 00 0000 0 0 0 00 00 0000 00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 00 0000. 00000 0000 00000 000000 0000 00000, 0000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00 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0 000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000000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실제 촬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영상 제작을 위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의 촬영 모습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 000 0 000 0000 00000 0000 0000
 0 00000 000 0000 A00(Action Plan)0 0 000 00 000 00 000 00000.
 0 5000 00 00000 00000 00000 00 000 000 00 0000 000 000 00, 00
 000 0 000 00 00000 0000 000.

0000 ‘0000’0 0000 00 00000 00000 00 00000 0000 00000000 000000, 0000000, 00000, 00000 000000, 0000000, KT&G000000, 0000 000000000000, 0000000000 0, 00000 00000 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 000000 0 00000 00000 00 000000, 00, 00, 00000 0000 00 000000 00. 0000 0000190 000000 00000 0000 0000 00 00000, 00000, 0 0000 000000 00, 0000 00000 00 00000 00 0000 0 00 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 0000 00 00 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00 00000 00000 00, 0 00(Citizen)00 0000000 00000(Cultural City)0 00000 0000000 0000 <0000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00 00000.

□□□□ : □□ □□□□□□ □□□□□□



Paul Yun (Paul Yun)

1996년 25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000000 0000 00000 000, 0000 00 00 000000 000000 0000
 0 00 000 000000 00. 000 000 000 000000 00000, 0000 0000 00 000,
 0000000000 000, 00 00000000 0000 00 000 0000 000000 000000, 00 5
 000 00 0000 00 000000 00000 00. tozio210@gmail.com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5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 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1〇 〇〇〇〇〇, 2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3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2020〇 13〇 〇〇, 2021〇 20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 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2021. 4. ~ 12.
〇〇〇〇	〇150,000,000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1〇〇 〇 〇〇 2,000〇〇, 〇〇〇 〇 14,000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10〇

□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2021〇〇〇 2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 〇 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2021. 4. ~ 12.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	□□□□□□□□ □□ ‘□□□□□’ □□ □□□ □□□ □□
□□□□	□□□ □□ □□ □ □□
□□□□	2□ □□, □□□ □ 7,000□□

■ □□□□□□□□

□ □□□□□ □□□□□□□□□□□□ □□□□□□□□□□ □□□□ □□□□□ □□□□ <□□□□□□ □□□□>□ □□ □ □□□□ □ □□ □□□□ □□ □□□□. 2020□ □□□□ □□ □ 3□ □□□□ □□□□ 2020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 <□□ □□ □□: □□, □□, □□□ □□□□□>
□□□□	2021. 1. ~ 12.
□□□□	□75,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 □ □	□□□□ □□□
□□□□	2021. 3. ~ 6.
□□□□	□15,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 □ □	□□□□ □□□□
□□□□	2021. 4. ~ 11.
□□□□	□2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회, 2020년 12월 31일 (국회, 2020. 12. 31.)
 - - “국회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0 00 0000 0 000 000000 00 00”
- * 2021년 1월 1일 국회, 2021년 4월 28일 (국회, 2021. 4. 28.)
 - - ‘국회 2021년 1월 1일’, ‘국회 2021년 1월 1일 000?’ 0

□□□ (□□□□)

2000년대 초반, 한국 미술계는 '흑백'이라는 색채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작가들 중에는 '이비리'라는 pseudonym을 사용한 작가도 있었다. 이비리는 'Ivory Black'의 줄임말로, '象牙(이비리) + 흑(검정)'을 합친 말이다. 이비리는 주로 흑백의 대비를 강조한 추상적인 작품을 그렸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관람자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선사했다.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

박진아 | 장원나 | 주마나 마나 | 찰스 림 이 용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타냐아 칸다야니
파브리치오 테라노바

Reclamation,
New Rocks,
Stray Dogs,
Birds,
and
Acoustics of the Garden

2021/05/21 - 07/25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B, E3, G1, G3 전시실 Gallery B, E3, G1, G3









남순우(Nam Sunwoo)

남순우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화, 조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순우의 작품 세계와 예술적 접근

남순우는 자신의 작품에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추구한다.

2020년 남순우는 개인전 'Submerged Vessel'을 개최하여 그의 예술적 철학과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이 전시에서는 그가 최근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조각을 결합한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남순우는 자신의 작품에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Submerged Vessel'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전시를 통해 남순우는 그의 작품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고, 현대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2015년 남순우는 서울에서 열린 '현대미술의 흐름' 전시에서 그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그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해온 과정과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남순우는 이 전시를 통해 그의 예술적 철학과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남순우는 자신의 작품에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추구한다.

[illegible]



000, <00 0>, 0000(00000 00, 0, 0000, 000 00 00 000), 2020 (00:
 000000000)

[illegible]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0 000 000 000 00.
 00 0 0000 0 000 000 00000(memento mori) 000000? 000 000 0000 0
 00 000 00 00000 00000000 00. 000 00 000 000 000 000 0 00 000 00
 0000. 000 000 00 000 0000, 000 000 00 000 0000 00 00 000 000.
 00000 00000 000 00 000 00000 00000 000 000 00 00 00000 00000 00000.
 000 0 00 000 00000 0 0 000 00 000000 0000 000000 00000 000 000 00
 00. 00000000 000 00 000 00000, 000 000 000 00000 0000 0 00 000 00

